

한화건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이달 초 분양

45층 랜드마크가 들어선다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은 10월 초, 전주를 대표하는 친환경생태도시인 전주에코시티에 복합단지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를 분양할 계획이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전주에코시티 주상복합용지 1.2블록(덕진구 송천동2가 1313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45층, 총 6개동(아파트 4개, 오피스텔 2개)의 복합단지이다. 주거시설은 전용면적 84~172㎡ 아파트 614세대와 전용 84㎡ 단일면적의 주거용 오피스텔 203가구가 있다. 타입 별 세대수는 아파트가 ▲84㎡ 210세대 ▲116㎡ 119세대 ▲116㎡B 38세대 ▲120㎡ 122세대 ▲130㎡ 121세대 ▲163~172㎡ 4세대이며, 오피스텔은 ▲84㎡A 127가구 ▲84㎡B 76가구로 구성된다.

특히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 지역 투자자들에게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전용면적 1만2,614㎡ 규모의 상업시설도 함께 분양에 나선다. 상업시설은 그라운드 1층(G1)과 지상 1층으로 구성되며, 약 170m 길이의 스트리트형으로 설계돼 보행자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에코시티 내 입주자 3만2천여명, 공영(세병공원, 세병호) 방문객 등의 이용 수요 뿐 아니라, 단지 우측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계획되어 있어 많은 유통수요가 기대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에코시티는 송천동 일대 199만㎡ 규모 부지에 1만3100여 가구가 계획된 미니신도시급 주거 타운이다. 에코시티는 주거와 상업, 행정, 문화, 자연 등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조감도

주거용 오피스텔, 청약통장 상관없이 청약 가능
단지 내 전용면적 1만2614㎡ 규모 상업시설도 분양
송천역 네거리 인근 건본주택 오픈 예정

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건설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며 동시에 우수한 생활 편의성까지 갖춰 전주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게 형성돼 있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에코시티 내에서도 세병공원(세병호)와 맞닿아 있는 핵심 입지로서 눈길을 끈다. 일부 세대에서는 탁 트인 공원 조망이 가능하며, 인근 백석저수지, 건지산, 전주동물원, 전주덕진공원 등도 10분 내외 거리로 이동이 가능하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KTX 전주역이 차로 10분대 거리이며, 동부대로와 과학로를 이용하면 전주제

1~2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 등 인근 산업단지까지 20분내외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호남고속도로(전주IC), 익산포항고속도로(완주IC), 순천완주고속도로(동전주IC) 등을 통해 외부지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교육 및 주변 인프라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에코시티 내 화정초와 화정중(2022년 개교 예정)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키즈도서관, 수영장, 주민센터 등이 들어서는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2022년 예정)도 단지 옆에 예정돼 있다. 단지 맞은편에 중심상업지구(예정)가 위치해 있고, 농수산물시장, 롯데마트, 메가월드,

전북대학교병원 등의 생활 편의시설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한화건설 조성준 분양소장은 "한화건설이 그동안 공급했던 복합단지들은 지역 내 시세를 리딩하며 높은 프리미엄을 보이고 있다"면서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역시 한화건설만의 특화설계와 우수한 상품성, 뛰어난 입지, 에코시티 최고층 단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는 전주시 송천동 2가 1326-9 주건빌딩 7층에서 홍보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10월 초 전주시 송천동2가 1332-5(송천역 네거리 인근)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 예정일은 2023년 4월 예정이다.

스웨덴어로 '연결'을 의미하는 포레나는 '사람과 공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겠다는 한화건설의 의지를 담고 있다. 브랜드 슬로건은 '특별한 일상의 시작'으로 포레나를 통해 경험하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를 담았다.

포레나는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통합브랜드로서, 기존 품에그린과 오벨리스크 브랜드를 대체하게 되며, 서울 거점지역 분양 및 노출빈도 확대를 통해 브랜드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화건설의 신규 브랜드는 지난 8월 공급된 '포레나 천안 두정(1,067세대)'을 시작으로,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817세대), 포레나 인천 투원시티(1,128세대), 도마 e한한체상포레나(1,881세대) 등 향후 분양예정 단지에 적용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농작물·시설물 미리 살펴야

태풍 북상 "쓰러짐 예방 작업 필요"… 농민청, 피해 최소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일,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의 진행방향에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음에 따라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과 비닐은 실·인삼해가림시설 등 농업시설물의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태풍은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며, 2일 밤 제주도를 거쳐 3일 전남 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지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벼는 현재 벼 알이 무르익는 시기(등숙후기)에 있어 바람에 매우 취약하고 물에 잠기게 되면 쌀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물꼬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잡초나 바다에 쌓인 흙을 없애주고 논두렁과 제방 등의 붕괴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

사과, 배와 포도 등 과수는 수확을 진행하고 있어 비바람으로 열매가 떨어지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우려된다.

방풍망은 미리 살펴보고 나무가 쓰러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받침대 등을 보강하고, 열매가 달려있는 가지는 고정해야 한다.

또한, 마늘과 양파 등 노지 밭작물은 강한 바람과 비로 쓰러지거나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밭물로 흙이 슬러 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배추, 무는 물길 정비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비닐은실은 비닐끈 등을 이용해 바깥쪽 비닐을 온실 뼈대(골조)와 최대한 붙여주고, 측창과 환기창은 닫아야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앞선 2번의 태풍으로 농작물의 자랄이 많이 약해진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없애도록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공정경쟁연합회와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준법의식과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 준법의식·청렴의식 고취 협력

중기중앙회-공정경쟁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일 공정경쟁연합회(회장 신현운)와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준법의식과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들이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에서 규정한 공정거래 관련 제도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함으로써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반부패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담, 공정거래 온라인 교육 지원,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인 ISO37001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에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대응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공정거래 관련 제도교육과 상담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지난 2015년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기업의 반부패, 청렴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

다 높아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법률준수 및 반부패시스템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ISO37001 인증 취득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며,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거래 교육,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힘을 모으는데 뜻을 같이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공정거래 제도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데 협력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도 기업 현장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도시재생센터장 임용식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1일, 본사 3층 사정실에서 2019년 하반기 경력 및 신입직원과 전북도 도시재생센터장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직원은 신입과 경력직 총 6명으로, 이 중 전라북도 출신 인재(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북도인 자)는 5명이다.

공사는 전라북도가 100% 자본금을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실업률 해소 및 청년고용에 일조하기 위해 지역제한을 두고 있어 전북 출신 지역인재 발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한 공사는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도입하고, 국가직 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능력 중심의 맞춤형 인재를 적극 선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경진원, 소리축제 기간동안

전북사회적경제페스티벌 운영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전주세계소리축제 기간 동안 '전북사회적경제페스티벌'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본 행사는 도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개 기업이 나흘간 8회의 무료공연으로 관객을 맞는다. 공연은 퓨전타악, 풍물, 민요 등 전주세계소리축제와 어우러지는 장르로 구성되었으며 대표 공연으로는 도내 마당놀이 공연팀인 '합굿마을'의 풍물공연 '오 해피 GOOD!'이 준비되어 있다.

'사회적경제페스티벌'은 전주소리문화의전당 축제장 내 '리틀플레이존'과 '연지마당'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윤상 기자

'1만8000대 규모 최대 10% 할인 혜택'

현대차, 세일즈 페스타 진행

아반떼 · 쏘나타 · 그랜저 등

최대 10%! 현대차를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현대차는 10월부터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코나, 싼타페 등 주요 인기 차종 약 1만 8천대를 대상으로 최소 3%에서 최대 1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현대 세일즈 페스타(H-Sales Festa)'를 진행한다.

현대차는 2019년 한해 고객들의 지속적 성원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 대규모 할인 행사 '현대 세일즈 페스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총 6개 차종을 대상으로 최대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현대 세일즈 페스타'는 1일 선착순 판매 개시 후



차종 별 한정 수량 약 1만8천대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속된다.

각 차종 별 할인율은 정상이 대비 ▲아반떼 5~7% ▲쏘나타 3~7% ▲그랜저 10% ▲그랜저 하이브리드 6~8% ▲코나 5~7% ▲싼타페 3~5%이다. 아반떼, 그랜저,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1.25%, 쏘나타는 2.5% 저금리 할부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최상위 트림 기준으로 최대 할인액을 살펴보면, 아반떼 1.6 터보는 165만원, 쏘나타 2.0 가솔린은 230만원, 그랜저 3.0 가솔린은 387만원,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319만원의 톱 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나 1.6 디젤은 최대 171만원, 싼타페 2.2디젤은 최대 177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연중 최고 할인 혜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규모 할인 행사는 신차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고객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연중 최고 수준의 혜택으로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며,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코나, 싼타페 등 현대자동차의 주력 차종을 대상으로 하는 톱 콘 이벤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식품연구원, 김치 국제 규격 개정 공청회 개최

김치의 국제 규격(CODEX, 2001) 인정 이후, 국제 식품 시장의 변화 등에 따라 이를 수출하기 위한 산업계의 국제 규격 개정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치 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김치 규격 개정 공청회'가 지난날 30일, 양재 aT센터에서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개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이하 식품연)이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김치 수출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국내 산업계의 지속적인 수요에 부응하여 국제 규격 개선의 수행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이

루어지는 행사로 향후 김치 수출 확대에 있어 초석으로 작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1971년 코덱스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농식품부(검역정책과)가 코덱스 공식 접촉창구로 등록된 이후 김치(세계 규격, 2001, CODEX STAN 223-2001), 고추장(아시아지역규격, 2009), 된장(아시아지역규격, 2009), 인삼제품(세계규격, 2015), 김제품(아시아지역규격, 2017) 등을 등록해 왔다.

과거 국제 규격 등록 후 상당 시간이 흐른 관계로, 식품에 대한 국제 시장의 변화에 따라 김치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서는 규격 또한 일부 개

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간 업계의 목소리였다.

공청회에서는 우선, 김치의 CODEX 국제 규격 및 개정 수요에 대한 현황 및 김치규격 개정 수요에 대한 학술적 배경을 설명하고, 업계에서는 김치 수출에 대한 현황과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김치협회장 이하연, 동국대학교 이광근 교수 등이 패널로서 Kimchi cabbage 용어에 대한 내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전통 식품 수출을 위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격화를 주도하여 김치, 고추장, 된장, 인삼제품, 김제품 등을 완료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전통 식품의 규격화를 추진 중이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사업 도내업체 참여 확대 방안 논의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지난날 30일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를 방문하여 새만금사업에 전북업체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윤방섭 회장은 "새만금사업이 새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되고, 지난해 세계질버리대회 유치는 물론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마련되었다. 또한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지역건설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크게 기대된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하지만 "전라북도 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 상황, 지역자

재·장비 등의 사용 촉진 지원과 새만금 사업 컨소시엄 구성시 지역업체 참여율 40%이상 반영 등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새만금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극 활용해 다수의 지역 업체가 새만금사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고,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도 "희망과 기회의 땅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가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윤상 기자